

+ 찬미예수님

모두들 성주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부활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감사와 기쁨속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.

3월 넷째주 공지 드립니다.

 **감사합니다**

지난주 트락구역 부활맞이 대청소(3/20)에 참여해 주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. 수고 하셨습니다!

파스카 성삼일 전례 - 볼드체는 트락구역 관련 행사입니다.

1) 3/24 목요일: 주님 만찬미사 저녁 8시

수난감실 성체조배 - 0시(자정) - 새벽 1시 (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저녁) 장소: 대건회관 성체조배실

2) 3/25 금요일: 주님 수난예식 저녁 8시. 단식, 금육. 십자가의 길 오후 3시

3) 3/26 토요일: 부활성야 미사 저녁 8시

빛의 예식때 신자들의 초에 (부활초에서 옮겨진) 불을 붙여줄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. 미사 약15분 전에 오셔서 준비할 수 있는분들, 알려 주십시오.

4) 3/27 주일: 주님부활 대축일미사 오전 11시

음식바자회 - 트락회에서 음료/주류를, 저희 그룹은 안주로 골뱅이 무침을 판매합니다.

이상준 스테파노 형제님 기일 연미사

지난 3월 19일 스테파노 형제님의 기일을 맞아 연미사에 참석/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.

형제님을 위한 다음, 3월의 마지막 연미사는 3월 29일 화, 오후 7시반에 있습니다.

만남의 성경모임

조 마오로 수녀님과의 "만남의 성경모임" 두번째 모임이 3/19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. 새로운 분들도 뵈고 좋은말씀 나누는 은총의 자리에 더욱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(다음 모임: 4/2, 4/9, 4/23)

<세번째 모임>

일시: 4월 2일 토, 오전10시-오후12시

장소: 사제관 건너편 방

대상: 30대 이상 성경말씀 나눔에 관심있는 미혼남녀 (신자/비신자 포함)

단체이름 - 추천, 워크샷(4/3)

우리 새 단체를 대표할 이름을 계속 추천받고 있으니 이름+이유를 직접,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.

추천된 이름을 모아 부활절 이후 4/3일 주일날 워크샷 형태로 함께 모여 의논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짧은 교리 (퍼온글)

<파스카 성삼일>

성주간(Holy week) 동안의 성 목요일, 성 금요일, 성 토요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, 죽음, 부활을 기념하는 전례 시기.

성 목요일 / Holy Thursday (주님 만찬미사)

사순절이 끝나고 '주님 만찬미사'로 성삼일이 시작됩니다.

주님 만찬 미사는 예수님께서 수난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저녁 식사로서 사랑의 성체성사를 기념하는 미사입니다. 미사 중 세족례가 거행되며 이는 예수님께서 애덕과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. (발은 신체 중 가장 낮고 더러운 곳이므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상의 봉사를 상징합니다.)

이 미사를 끝으로 예수님의 성체를 모셔두는 감실을 비우고 성체를 미리 마련된 감실 (수난 감실)로 모시며 제대는 정리하고 성전안의 모든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거나 치울 수 없다면 '자색의 보'로 가립니다. 이는, 이날의 미사가 **부활 성야 전에 드리는 마지막 미사**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 생활의 중심인 성체 성사를 세우신 이날의 미사에 참석하여 성체를 영함은 물론, 성체 조배를 통해 주님 사랑에 합치하고 이웃 사랑을 다짐합니다. 신자들은 **성금요일 전례 전까지 성체조배**를 합니다.

성 금요일 / Good Friday (주님 수난예식)

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신비를 더욱 깊이 새기기 위해 **십자가 경배와 단식, 금육**을 합니다. 이날은 교회에서 성사를 전혀 집전하지 않고 다만 주님 수난 예식(미사가 아님)을 행합니다. 이 예식은 말씀 전례부터 시작하며 독서와 주님 수난 복음을 통해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

십자가 경배: 사제는 보로 가린 십자가를 들고 "보라 십자나무,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" 하고 외칩니다. 신자들은 "모두와서 경배하세"라고 노래하며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표징으로 세워진 십자가 앞을 지나가며 경배합니다. 십자가 경배 후 영성체를 합니다.

성 토요일 / Holy Saturday (부활성야 미사)

부활 전야미사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심을 기억하며 제대는 벗겨진 채 미사도 드리지 않습니다. 이날 전례는 모두 밤에 거행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파스카를 지내던 밤을 생각하며 교회는 초세기부터 이 밤을 깨어 기념 했습니다. 특히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초 축복과 세례수 축복은 신자들에게 세례 때 받은 신앙을 새롭게 하고, 그리스도와 함께 이웃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.

부활을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은총 가득한 한주 되세요!

2016 회장단 - 전진영 베로니카, 이의천 베드로, 박보라 율리아나

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
St.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
6226 Camden Street, Oakland, California 94605
T 1-510-553-9434 | www.oakcc.org